



여덟번째 이야기

BEE Brazil의 시작!

[선교사 선교현장② 브라질]

2020년부터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재를 준비하며 인도자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2021년 7월, 김창연 선교사 부부와 함께 브라질 최북단 마까빠에서 일대일을 진행하면서 BEE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 후 살바돌, 이따이바, 아마존 등 브라질 북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일대일, 갈라디아, 로마서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상파울루와 리우 근교 여러 도시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모두 40여 회의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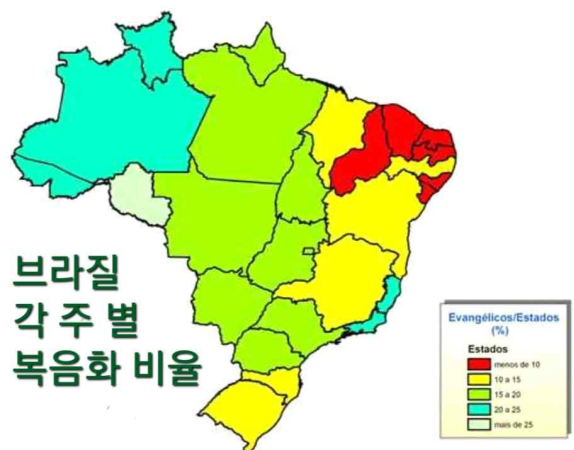


아마존 지역 세미나

브라질 복음주의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놀랍게 성장하고 있으며 매년 일 만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있지만 그 교회를 담임할 목회자가 없다. 그렇기에 신학을 하지 않은 평신도 리더들을 목회자로 임명하는데 이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브라질 교회들은 기복주의와 은사주의 운동을 통해 크게 성장하였는데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말씀 사역을 갈망하며 제자훈련에 대해 큰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브라질에 BEE 사역을 통한 말씀 훈련과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믿는다. 쉽고 가까운 곳에

갈 것인가, 아니면 멀고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곳에 갈 것인가?

브라질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나라로 남한의 85배가 되는 무척 큰 나라다. 처음부터 브라질 BEE 사역의 시작은 북동 지역이었다. 그곳은 복음화율이 가장 낮았고, 목회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었다. 말씀으로 준비된 사역자가 없는 곳에 복음화율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세미나 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은 평생 처음”이라며 눈물 흘리며 간증하시는 목회자들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그곳에 가기까지는 15~20시간 정도 소요되며, 비행기와 버스로 이동해야 하기에 경비도 무시 못 한다.



빨강 10% 미만, 노랑 10%-15%, 연두 15%-20%
민트 20%-25%, 갈색 25% 이상

세미나를 한번 마치면 그곳에 계신 목회자들은 빨리 다음 세미나를 하자고 요청하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쉬울 뿐이다. 한번 다녀오면



15시간 걸려 달려간 비아우이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너무 힘들어서 또다시 거기에 가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가까운 곳에서 쉽게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사는 상파울루에서도 BEE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회자들에게 BEE 사역을 통해 본 교회의 제자훈련 정착을 돕고 있으며, 특정 교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지도자들을 훈련하며, 또 훈련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쉽게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멀고 힘들고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곳까지 가서 고생하며 가야 하는가 하는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단 한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방향까지 바꿔 힘들게 달려간 바울처럼 가깝고 쉬운 곳뿐 아니라 멀고 힘들지만 말씀과 도움이 필요한 목사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바울 코스프레는 아니지만 순종해보려고 한다.



브라질 최 북단 마까바에서 진행한 다섯번째 사역(롬, 일대일)을 마치고

[글쓴이 박지웅 선교사]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 1971년부터 베트남, 독일, 브라질의 선교지에서 살았으며, 상파울루 침례 신학 졸업 후 1994년 Fuller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전공한 후 브라질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지난 30년간 목회자들을 위한 다양한 훈련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SEED 선교회 소속으로 BEE Korea와 BIBLETIME과 함께 말씀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남미 현지인 선교 헌신자를 훈련하여 모슬렘 지역과 북방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3년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혜 있는 자나
야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2. '하나님의 메신저' 전 BEE World 대표이셨던 알 브릿지스 선교사님의 세미나가 있습니다(4/20~22). 문의는 BEE 사무실 (Tel) 02-822-9480.

하나님의 메신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BEE World 알 브릿지스 선교사 강의

- ◆ 일 시 : 2023. 4. 20(목) - 22(토)
- ◆ 강의시간 : 4. 20(목) - 21(금) 저녁 / 4. 22(토) 오전
- ◆ 강의실 : 상도동 BEE 본부 지하
- ◆ 수강료 : 무료
- ◆ 대면 · 비대면 동시진행

3. 아프리카 현지화 사역을 위한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이 있다면 본부로 보내주세요! 선교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맛난 음식과 고운 옷이 점점 재미가 없어졌다

요안나



남편은 헤롯왕의 재정 장관이다.
덕분에 집안 살림은 남부럽지 않고
주머니도 풍족하지만,
악덕 상전 밑에서 남편은
늘 내일을 불안해한다.



모놀로그 in 바이블

1년 전에 회당에서 선생님을 만났고
제자가 되었다.
남편 모르게 선생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 따라다녔다.



모놀로그 in 바이블

맛난 음식과 고운 옷이
점점 재미가 없어졌고,

어떻게 하면 가지 있게 살 수 있을까를
즐근 생각했다.



모놀로그 in 바이블

아! 이 하늘의 법칙을
남편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건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것을...



모놀로그 in 바이블

"후우! 오늘부터 또
헤로디아를 위한 흥정망청 연회요.
맨날 이러면서
국고 부족이 다 내 무능 탓이람이다.
언제 잘릴지 모르니
허튼 데 돈 낭비하지 말아요."



모놀로그 in 바이블

남편을 임금시키고
서둘러 회합 장소로 출발했다.

갈릴리의 완만한 언덕을 한참 걸어
정상에 오르니
이미 백여 명의 제자들이
용기총기 모여 앉아 있다.



작은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모놀로그 in 바이블

어딜 가도
고아와 과부부터 챙기시는 그분을 보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물려받은 풍요와 기득권이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여겨졌다.



모놀로그 in 바이블

"내일 걱정은 내일이라는 놈에게
맡겨 버리세요!"
선생님의 농담에
퍼뜩 출근길 남편의 뒷모습이 떠오른다.



모놀로그 in 바이블

해롯의 나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나라를 위하여
돌아서 한마음으로 헌신할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한다.



모놀로그 in 바이블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